

전남,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 1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2024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서정진 사무처장과 임직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한상득 수석부회장과 생활체육임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한 고희숙 대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특·광역시 1위'...7년 연속 A등급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시·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특·광역시 중 종합 1위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사업평가(50%), 현장평가(30%), 행정평가(10%), 정책반영평가(15%), 위원회평가(5%) 등 총 5개 영역의 성과지표 평가 점수를 합산해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190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43명)

및 찾아가는 서비스(1만명 참여), 공공스포츠클럽 및 전남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우수체육시설 선정(여성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남 시·군장애인체육회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22개 시·군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우수시·도 인증패와 국비 약 2억여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한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올해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과 열정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끈기있게 노력해준 도민들이 있었기에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과 함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어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교실사업 등록인구 증가율 상승, 동호인 및 교실 유형의 균형적 지원, 참가자 만족도 부분 등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역 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동호인대회 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동호인클럽 운영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공공스포츠클럽, 동계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국 최고를 입증했다.

또한 '특·광역시 종합 1위 성과'와 함께 '2024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 우수사례' 및 '2024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우수 담당자'에 고희숙 생활체육팀 대리가 선정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도 함께 수상하는 값진 성과도 거뒀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성과는 광주시와 57개구 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장애인들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에 힘써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박영민 전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제3대 광주시족구협회장 당선

광주시족구협회 제3대 회장으로 박영민 전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이 당선됐다.

박영민 당선인은 지난 14일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총 41표 중 28표를 획득, 13표를 얻은 임동연 후보를 1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당선인은 "광주족구 동호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존경하는 임동연 후보와의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광주족구동호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족구협회가 17개 시·도 협회 중 가장 탄탄한 협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



박영민(왼쪽) 제3대 광주시족구협회장 당선인 이 당선증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으로 광주 족구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체육회장 선거 중지가 처분 신청 대이변 '기폭제'...판을 흔들었다

선거 방식 불합리성 알려져 표심 요동...정권교체 '마중물'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한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 이기흥 후보가 여유롭게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체육회장 선거 중지가 처분 신청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를 통해 선거 방식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대의원들에게 환기되는 효과를 냈다.

처음 투표에 참여한 한 대의원은 "처음에는 단순히 당일 투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의원

들 사이에서 확산했다"고 말했다. 이기흥 선거 캠프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해

석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은 유승민 후보에게로 쏠렸다.

이기흥 후보 측의 선거 운동 방식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17개 시도단체를 돌며 회장들을 일일이 만났다. 이들이 체육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선거에서 표는 각 1표에 불과했다.

반면 유 후보는 시도단체 실무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표심을 얻는데 성공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기념 8개 전 종목 체험하고 짧은 영상(쇼츠)을 제작해 온라인에 공유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끌어냈다.

강태선 후보의 선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체육회장 선거에서 216표(득표율 17.9%)를 얻어 3위를 기록한 강태선 후보는 서울시체육회 회장으로, 그의 지지표 상당수가 이기흥 후보의 표를 빼앗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낙선' 이기흥, IOC 위원직도 2월 말까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임기 종료와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도 마무리된다.

정원이 115명인 IOC 위원은 개인 자격(70명) 외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선수 위원(이상 15명씩)으로 이뤄진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NOC 대표 자격의 이기흥 회장과 IF 대표 자격의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두 명이다.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장을 맡아 온

이기흥 회장은 2019년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돼 활동해왔다.

올림픽 현장에 따르면 NOC나 종목별 국제연맹(IF)의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경우 선출 당시 수행하던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IOC 집행위원회나 총회를 통한 최종 결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장 내용상으로는 대한체육회장 임기가 끝나 2월27일로 이 회장의 IOC 위원직도 종료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후 우리나라의 IOC 위원은 김재열 회장만 남는다. /연합뉴스

광주FC, '에이스' 헤이스가 돌아왔다

2022 K리그2 우승 주역, 3년 만의 컴백...헤이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행복"



프로축구 광주 FC 에이스 헤이스(32)가 돌아왔다.

광주는 15일 '2022년 광주의 K리그2 우승 주역이자 제주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축전 공격수 헤이스를 영입하며 공격 보강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2021년 광주에 입단한 헤이스는 데뷔 첫 해 30경기 4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등극했다. 2022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며 39경기 12골 4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했고, 광주가 K리그2 최다 승점으로 우승 및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헤이스는 이후 2023년 제주SK로 이적해 2년간 64경기 12골 7도움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3년 만에 다시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됐다.

헤이스는 큰 체격은 아니지만 밸런

스가 좋아 공을 쉽게 빼앗기지 않으며 우수한 탈압박과 드리블로 공격 진영에서 풀어나오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날카로운 킥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창출하며, 압박도 성실히 이해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은 선수로 평가 받고 있다.

헤이스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행복하고 광주 팬들을 다시 만날 생각이 굉장히 설렌다"며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3년 만에 친정팀 광주FC로 귀환한 브라질 특급 공격수 헤이스 <광주FC 제공>



3년 만에 친정팀 광주FC로 귀환한 브라질 특급 공격수 헤이스 <광주FC 제공>

밝혔다. /박희중기자

'3천만弗 사나이' 임성재, PGA 통산 3승 도전

17일 개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정조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3천만달러를 돌파한 임성재가 3년 묵은 우승 갈증 해갈에 나선다.

임성재는 오는 17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린

PGA 투어 세 번째 대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 라킨타 CC, 니콜라우스 토너먼트 코스(이상 파72) 등 3개 코스에서 1-3라운드를 번갈아 치고 상위 65명이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에서 최종 라운드를 치르는 방식이다.

임성재는 시즌 첫 번째 대회였던 더 센트리에 이어 두 번째 출격이다.

더 센트리에 3위에 오르면서 136만달러의 상금을 따낸 임성재는 통산 상금 3천125만9천508달

러를 찍었다. PGA 투어에서 3천만달러 넘게 상금을 번 선수수는 47명뿐이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3천280만3천596달러)에 이어 임성재가 두 번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임성재가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3번째 우승을 이룰 가능성은 꽤 높다. 우선 임성재의 경기력이 좋다. 시즌 첫 대회 더 센트리에 임성재는 3, 4라운드에서 62타와 65타를 쳤다.

우승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함께 3, 4라운드 최저타수를 기록했다.

나흘 동안 버디 31개를 뽑아냈고 보기는 4개뿐이었다.

또 출전 선수 명단에 임성재를 압도할 강호가 많지 않다. PGA 투어닷컴 파워랭킹은 임성재를 1위로 꼽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 세계랭킹 2위 잔디 쇼플리(미국)가 건강을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면서 임성재의 우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에 임성재(19위)보다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는 7위 워턴 클라크와 12위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 둘 뿐이다.

임성재가 우승 상금 158만4천달러를 손에 넣는다면 최경주를 제치고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우리나라 선수가 된다. /연합뉴스

